

SK케미칼, 수원에서 이사간다!

공장부지의 주거용지 변경으로 ... 운영손실 100억원에 민원 겹쳐

경기도 수원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SK케미칼이 타 도시로 옮겨가는 한편, 공장 부지는 주거용지로 용도변경되면서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인 것으로 발표됐다.

SK케미칼은 연간 100억원 이상의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수익성 악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수원시도 공장 주변에 들어선 대규모 주거단지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공업용지 재배치를 위해 주거단지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9월7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열어 수원시 정자동 SK케미칼 공장부지 0.472km²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공장이전 계획에 따른 공장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대신 전체 부지의 40% 이상을 공공부지로 내놓는다는 조건이다.

SK케미칼 주변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정자1, 천천1, 천천2 지구의 아파트 단지와 2006년 지정된 정자 주택재개발지구와 이목동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등의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끊임없이 공장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SK케미칼과 관련해 수원시에 접수된 민원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총 303건에 달하며 악취발생, 하천오염발생 근원지 규명, 오염발생 물질의 인체유해성 질의, 공장이전요구 및 이전시기 문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SK케미칼도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공정을 개선하기도 했지만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위치한 공장이기 때문에 야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이 불가피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하는 SK케미칼 공장 부지 만큼의 공업지역을 고색동 수원지방산업단지(3단지)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어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수원시는 설명했다.

SK는 계속되는 운영손실과 민원 등으로 더 이상 SK케미칼 공장유지가 힘들어졌다고 판단해 현재 타 지역으로 SK케미칼 공장을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SK는 2006년 1월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휴비스(섬유관련 자회사)공장이 폐쇄되고 각종 운영비용이 증가하면서 SK케미칼 공장에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운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 정밀화학사업 일부는 지속되는 수익성 악화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SK케미칼 공장의 자체가동률은 현재 25% 수준이다.

SK는 1995년 1월 117억원을 들여 팔달구 신평동에 선경도서관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500억원 규모의 시민예술회관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케미칼은 SK그룹 계열의 화학 및 합성섬유 제조기업으로 1969년 수원에서 선경합섬으로 출발해 1988년 선경인더스트리로 1차 상호가 변경된 뒤 1998년 현재의 상호가 바뀌었다.

공장면적은 38만m²으로 종업원 460명(연구소 176명 포함)이 정밀화학, 아세테이트 원사, 폴리에스테르, 부동액, IT소재, 의약품료 등을 생산해 왔는데 휴비스공장 폐쇄와 일부 사업의 중국 이전 등으로 2003년 보다 전체 매출액, 가동률, 인원수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17>